

탐험가의 이름을 빌려 명명한

마스크멜론의 껍질과 같은 아문젠

소모옷감인 아문젠이라던가 조오젯은 천의 표면에 배 껍질과 같은 작은 알갱이가 흩어뿌려져있듯이 돌아나 있다. 또는 꼬인 실이 마스크멜론의 껍질과 같이 되어 섬세한 기복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기복에 의하여 후쿠라미와 상쾌한 손촉감, 피부 촉감이 생기고 피부와 떨어짐도 좋다.

하리, 고시는 아름다운 주름이나 개터를 나타낸다. 이러한 이유에서 울 조오젯은 팍투성이인 여름에도 입기도 하고 주름이 잘 생기지 않고 생긴 주름은 옷걸이에 걸어 두면 없어지기 때문에 수고가 들지 않는다. 블랙포말로써도 드레스나 스커트로써도 일년 연중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문젠이나 울 조오젯의 기복은 이지직에 의하여 만든다. 이지직을 확대경으로 보면 소모사의 경위사가 불규칙한 위치에 부침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복은 이것에 의하여 나타내고 있다. 자세히 보면 아문젠은 강하게 꼬인 실은 아니고 울 조오젯은 강하게 꼬인 실인 크레이프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조오젯의 경사는 S꼬임의 크레이프사와 Z꼬임의 크레이프사가 1올씩 교호로 배열되고 있다. 이것에 의하여 기복효과를 얻고 있다. 이렇게 S꼬임과 Z꼬임을 한올 교호로 배열한 것을 SZ를 붙이고 고급품이다. 이지직인 울 조오젯은 리지(□□)라고 별도로 붙이는데 그 이유는 크레이프사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만든 울 조오젯이 다량으로 출하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곱슬 주름이라고 하는 기복을 가지고 있어 잔털이 없고 가볍고 비교적 값이 싸다. 추동용 이지 조오젯은 모우를 일으켜 바닥을 치밀하게 하기도 한다.

* 조오젯(Georgette) : 경사와 위사에 모두 강연사를 사용한 얇은 평지 바탕지의 측면을 말한다. 조오젯크레이프(georgette crepe)의 속칭으로 처음에는 견직물이었으나 요즘에는 합성섬유를 이용하여 많이 생산된다. 위사와 경사 모두 오른쪽 꼬임과 왼쪽 꼬임을 두 가닥씩 번갈아 배열하여 평직으로 짜고, 직조 후에 정련해서 주름을 낸 직물이다. 1913년 프랑스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표백한 것 이외에 바탕염색·날염 등의 가공을 하고 베일·어깨걸이·램프갓·커튼 등에 사용된다.

* 크레이프(crape) : 위사에 강연사(强撚絲 : 1m안에 800회 이상 꼰 실)를 번갈아 박아 넣은 견직물. 이의 대표적인 원단을 크레이프 드신(crepe de Chine), CDC 또는 드신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경사에 꼬임이 없는 생사, 위사에 강연생사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제작한 다음, 소다를 섞은 비눗물로 여러 시간 끓여 수축시키고, 물로 씻어 풀기를 제거한 다음 건조시켜 마무리한다. 이때 무게는 생직물 무게의 75%까지 감량이 되며, 직물 표면에 섬세함 잔주름이 균일하게 생긴다. 꼬임이 많은 위사를 크레이프 위사라 하는데 꼬임수는 1m당 1,500~2,500회 범위이다. 위사는 일반적으로 우연사(右撚絲 : 오른쪽 꼬임 실) 두 올에 좌연사 두 가닥씩 번갈아 짜 넣는데, 품종에 따라서는 우연사와 좌연사의 배열을 1:1 또는 3:3으로 하여 잔주름의 크기에 변화를 준다. 크레이프의 제조에 있어서는 연사법의 개량이 문제가 된다. 명주실은 장섬유이기 때문에 제작하기 위하여 꼬임을 줄 필요가 없어, 고대에서는 일부의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꼬임이 없는 실을 썼다. 그러나 13세기경에 중국에서 연사장치가 발명되어 명주실에 꼬임을 주는 것이 일반화하면서부터 크레이프 제조가 크게 번창하였다.

크레이프의 종류는 촉감, 잔주름의 크기나 모양, 무게, 규격 등에서 그 종류가 매우 많으나, 평조직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다. 원료는 인견사가 많이

쓰이나 기타 견·면·소모사·합성섬유 등도 많이 쓰인다. 크레이프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은 유연사와 좌연사를 번갈아 배열시키는 방법이 이용되는데, 이 방법을 경사이나 위사 어느 한 쪽에 하기도 하고 양쪽에 다 하기도 한다. 크레이프는 일반적으로 외관과 촉감이 좋고, 유연하여 장식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널리 애호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용의 옷감으로서 많이 쓰이고 있다.

* 아문젠(amunzen) : 경사, 위사를 모두 강연사를 사용하여 크레이프 조직으로 짠 변화 능직의 소모직물에 붙여진 이름이나 면직물에도 같이 이름이 쓰인다. 탐험가 아문젠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름을 붙인 것이다. 원단에 이름의 붙여질 정도로 유명한 이 사나이는 도대체 누군지 섬유 관계인은 아니지만 한번 살펴보자. 물론 나도 상세히 모르고 학교 생활에서 단지 노르웨이 사람으로 남극점을 세계 최초로 탐험에 성공한 사람이란 것밖에는 모른다.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아문젠”을 검색해 보았더니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인물 사전으로 들어가 보니 그의 이름은 외국어로는 Amundsen, 한글로는 “아문센”이었다.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야 인터넷 검색도 효율적이지 결국 컴퓨터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다소 어리석은 일이 되어 버릴 것이다.

두산 세계 대백과 EnCyber에 의하면 아문센(Amundsen, Roald)은 1872. 7. 16, 선원의 아들로 노르웨이 보르게에서 태어나 소년시절부터 북극탐험을 꿈꾸었다. 크리스차니아(지금의 오슬로)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였으나 1895년 1등 항해사가 되고, 1897년~1899년 벨기에의 남극탐험대에 참가하였다. 이어서 탐험가 F.난센의 조언을 얻어 북자극 및 북서항로의 탐험을 기획, 1901년 그린란드 해안을 조사하였다. 1803~1806년 소형선 이외아호를 타고 대서양에서 북극해를 거쳐 태평양에 이르는 북서항로 항해에 사상 처음으로 성공하였으며, 이 항해에서 북자극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1909년 미국인 R.E. 피어리가 북극점에 도달하자 목표를 남극으로 바꾸어 1910년 프람호로 남극탐험을 떠났다. 로스해의 고래만 대빙벽에 기지를 설치하고 개썰매로 남극점을 향해 출발한 지 55일 만인 1911년 12월 14일 인류 사상 최초로 남극점 도달에 성공하였으며, 영국의 스콧 일행보다 35일 앞섰다. 1918~1920년 모드호를 타고 북동항로 항해에 성공하였고, 1925년 미국의 L.엘즈워스와 함께 비행정에 의한 북극비행을 시도하였으나 실패, 1926년 다시 엘즈워스, 이탈리아의 U.노빌레와 함께 비행선 노르게호로 스피츠베르겐으로부터 알래스카의 테러까지의 북극점 상공 통과 횡단비행에 성공하였다.

1928년 노빌레 일행의 북극탐험대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구출하기 위해 비행정으로 포름세 기지를 출발하였으나 돌아오지 못하고 조난사하였다. 그의 남극탐험에 쓰임 이 외아호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공원에 보존·전시되고 있다. 저서에 “남극점(1912)”, “북극해 최초 횡단(1927, 엘즈워스와 공저)”등이 있다.

크레이프 원단에 탐험가 아문센의 이름을 빌려 명명하였다고 하며 그 외에도 남극점 기지인 아문센 스콧기지(Amundsen-Scott South Pole Antarctic Station), 서스턴섬과 다투곶 사이에 있는 아문센해 등 탐험가 R. 아문센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곳들도 있다.